

국민의당 당원 3만→100만명으로 늘린다

최고위 당헌 개정...전당대회 내년 2월말 이전 개최

정책위 수석부의장 권은희...지역위원장·정책연구원 공모

국민의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내년 2월28일 이전에 열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최고위 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 시기를 내년 2월말 이전으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김희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기존 당헌 부칙 2조 3항에 따르면 차기 전당대회는 창당 후 6개월(8월2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돼 있으나, 창당 작업과 총선에 따라 지역위원회 등 당 기반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개최 시기를 연기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직자는 선거 1년 전 당직을 사퇴해야 하는 당헌 규정을 감안하면 현재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대선 출마를 결심할 경우 차기 전당대회는 이른 면을 연말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도부는 당의 기초조직과 정책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하기로 하는 등 총선 이후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우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 조만간 지역위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강특위는 다음달부터 오는 7월까지 활동하기로 잠정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100만 당원을 목표로 정책·직능·관심사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당원 배가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의당 당원은 3만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위원과 당 정책 전문위원 공모를 다음 주중 시작하기로 했다.

공제 과정에서 학위와 별개로 실무경력을 고려해 현장에서 능력이 검증된 지원자를 우대하고, 선발된 인력은 직급과 직렬에서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원내 지도부는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권은희 의원을 내정하고 향후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기로 했다.

당이 체제 정비를 마쳐가는 가운데 안 대표는 이날 총선 후에도 계속된 강행군에서 벗어나 모처럼 휴식을 취하며 정국 구

상에 집중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 외에는 공식 일정이 갖지 않았다. 전남도 아무런 외부 일정을 잡지 않는 등 주말과 휴일 동안 개인적 일정을 소화하며 오랜만에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캐스팅보트를 넘어 국회를 주도하는 제3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당의 지지세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양당에 대한 실망에 따른 반사이익이자 잠정적 지지의 성격이 있는 만큼 진짜 시험대는 20대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낙선자와 원외 인사를 활용하고 배려하기 위한 일부 당직 개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대표 본인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차기 대권을 향한 밀그림도 관심을 모은다. 당 안팎에서는 안 대표 측이 박지원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지원한 것이 안 대표의 대권행보를 위한 역할분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박 의원은 원내 협상과 대외관계 등을 맡을 최전방 공격수로 내세우고 안 대표는 한발 물러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주력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슨 이야기 할까” 김-안 2野 대표 만남
회에 참석해 다른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민 비대위 대표(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
/연합뉴스

與 원내대표 '나경원·유기준·정진석' 3파전

내일 선출...친박 표심 관전

새누리당 나경원, 유기준 의원, 정진석 당선인이 1일 최종 원내대표 후보로 등록하면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 막이 올랐다.

모두 4선인 세 후보는 이날 각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이날부터 경선이 치러질 오는 3일까지 선거전에 나선다.

나 의원은 비박(비박근혜)계, 유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 정 당선인은 범진박계로 구분된다. 또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나 의원은 김재경(4선) 의원, 유 의원은 이명수(3선) 의원, 정 당선인은 김광립(3선) 의원을 각각 선택했다.

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정 소통을)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일 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며 당정 관계의 변화를 공약했다.

유 의원은 이날 “그동안 우리가 계파에 따라 당의 리더를 선출했다면 이제는 달라진 환경에서 당을 살릴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달라”며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상생과 협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당선인도 “당정청 고위회동을 정례화하고 야당을 포함하는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상시로 가동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우리 당은 친박, 비박 나눠서 싸워서 안 된다. 이번 경선이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안철수,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1위

문재인 2위·오세훈 3위...박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멈춰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위에 올랐다. 현 정부 출범 후 지난주 지지율 최저점을 찍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29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표본 오차 95%±3.1%포인트)다.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상임대표가 21%로 1위에 올랐다. 이어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17%), 오세훈 전 서울시장(7%), 박원순 서

울시장(6%), 무소속 유승민 의원(4%), 새누리당 김부성 대표(3%), 더민주 김부겸 당선인(3%), 안희정 충남지사(2%)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안 대표는 갤럽의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 후보군에 포함된 이래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문 전 대표의 지지율도 올해 최고기록을 세웠다.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56%로 2%포인트 내려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기라운지

박주선, 중국 관광객 2만명 광주 유치 협약

국민의당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이 최근 중국 관광객 광주 유치를 위해 중국을 방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중국 상하이를 방문, 중국 대표 여행사인 카이사, 신화미디어그룹, (사)하중정년리더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만명 부부 한국 여행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내용이 담겨 있다.

협약서에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국 전역에서 3박4일 또는 4박5일 일정으로 2만명의 관광객을 광주에 보낸다는

임내현 발의 '공익법인 설립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민의당 임내현(광주 북구 울) 의원은 1일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활성화 해 사회 공헌을 위한 역할을 담당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된다”고 말했다.

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내현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익법인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명진,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원내대표 비서실장 4회 진기록

김명진(53)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29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비서실장(1급)에 내정됐다. 김 전 행정관은 이전에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2회,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특보 등을 역임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에 따라 원내대표 비서실장 4회, 원내대표 특보 1회 등 총



5회 걸쳐 원내대표를 보좌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김 실장은 14대 광주 남구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시작해 국회, 청와대, 정당 등에서 20년 넘게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국회 전문가다. 성실성·진화력, 소통능력, 긍정적 마인드로 두터운 인맥을 보유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국민의당 초선들은 열공중

공부모임 발족 매일 메신저 토론...당내 증진 강연도

국민의당 초선 당선인들이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의정활동 공부에 열입했다.

구조조정과 추가경정예산, 양적완화 등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이슈를 비롯해 의정활동 용어를 익히느라 공부모임을 만들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6월에는 매일 아침 ‘스파르타식 교육’을 방불케 하는 단체 학습도 진행한다.

1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3일 초선 당선인 23명은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된 박지원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모임의 발족식을 겸한 첫 오찬 회담에 참석한다.

먼저, 박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지역구 활동과 관련해 특강을 한 뒤 국

경북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가재정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한다. 당선인들은 유명 강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카카오톡과 이스라엘 모바일 메신저 ‘바이버’ 등을 통해 매일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4일에는 구조조정 이슈와 관련, 인천 남동공단의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노동자들의 실태를 둘러보고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정부 때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의원이 국가 예산의 심의·배분 과정을 강의하기로 하는 등 당내 인사들도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초선 당선인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 컨설팅 전문업체

지오옥션 경매 컨설팅

20년경력의 부동산 컨설턴트 성실한 상담

- ★ 공장 나주시 오량동 단층 및 2층공장, 대지5,735㎡ 건물3,965㎡ 동수오량농공단지내 ▶ 감정가 34억6천7백, 최저가 15억5천5백 (감정가의45%)
- ★ 공장 화순군 동면 단층 및 2층 미곡공장, 대지6,844㎡ 건물1485.8㎡ 연동마을인근 ▶ 감정가 13억2천만, 최저가 4억7천3백 (감정가의36%)
- ★ 공장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전통식품공장, 대지7940㎡ 건물3502㎡ 단층 및 3층 ▶ 감정가 24억9천4백, 최저가 4억2천
- ★ 공장 광안구 안청동 하남산단내 대지5,940㎡ 건물5872㎡ 단층 및 2층 ▶ 감정가 57억6천8백, 최저가 57억6천8백
- ★ 나주시 경현동 지하1층~지상3층 연수원건물, 대지1,488㎡ 건물2,075㎡ 경현리유원지부근 ▶ 감정가 30억6천5백, 최저가 8억7천9백 (감정가의29%)

※ 전지역 병원, 사우나 매매, 매입 상담 ※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조여사 010-6211-4585

채용 공고

- * 경매투자에 관심있는분
- * 부동산 배우면서 일할분
- * 공인중개사
- * 열정과 소신이 있는분
- *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분
- * 자격증 소지 무관

지금 도전하세요!!
T. 062-714-2251

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수익성 부동산 다량 보유

- ★ 광안구 옥동 평동역부근 근린시설용지기업은행뒤 대지 479㎡, ▶ 매매 5억8천만 (조정가)
- ★ 동구 학동 일반상업지구 대지 195㎡ 웰빙건강랜드부근 ▶ 매매 2억2천만 (조정가) 현 주자장
- ★ 근린시설 남구 주월동 지하1층, 지상8층 대지 3752㎡ 남구청 부근대로변 ▶ 감정가 35억4천4백, 최저가 35억4천4백
- ★ 근린시설 동구 동명동 8층 건물 대지 700㎡ 건물 2005㎡ 왕복 4차선접 ▶ 감정가 19억6천, 최저가 19억6천
- ★ 의료시설 장성군 삼서면 상무대 입구, 대지 11,546㎡ 건물 5,733,24㎡ 대로변 ▶ 감정가 48억8천6백, 최저가 48억8천6백

※ 전국 물건 매입 ※

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공태풍 010-3820-8151

T. 062-714-2251

NPL채권 전국 물건 상담
이주원 국장 010-7171-7610

권리분석, 수익성 상담
강천구 이사 010-6838-6008